“조계종 단일 기본교육기관 설립 시급”

탄형 스님, 〈불교와 사회〉 연구 논문서 주장

현 조계종 기본교육 현황 분석
기관 삼원화… 중복 이수 많아
학인 감소로 입학정원 못 채워

과감한 교육기관 구조조정 필요
“종단 직영 종립학교 탈바꿈을”
전통강원,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전통 · 현대 교육 병행 재구조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은 물론이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까지 아울러 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일 기본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출가자 감소로 학인 수가 급감함에 따라 기본교육기관 구조조정은 승가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뚜렷한 해법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찰승가대학 등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통합해 종단 직영 단일 기본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과 실천불교전공 박사과정 탄형 스님은 〈불교와 사회〉제13권 1호에 발표한 연구논문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의 역할과 대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 사찰승가대학, 대학교, 기본선원으로 삼원화된 기본교육기관을 조정하고 단일화된 종단 직영 교육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현대불교 자료사진

탄형 스님은 논문에서 종단 기본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하고 노정돼 있는 문제점을 되짚었다. 현재 조계종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기관은 사찰승가대학 14개소, 대학교 2개소, 기본선원 1개소로 총 17개소다. 현행 5급 승가고시 합격자가 100여 명 대(2021년 99명)인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교육기관들에 평균 10명이 안 되는 학인이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탄형 스님은 “(승가기본교육기관은) 인천의 사표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임에도 대의를 보지 않고 각 사찰의 운영을 위한 안위만을 생각해 종령을 바꾸면서 학인 정원의 하한선을 여러 번 조정했다”고 지적하며 “기본교육기관 적정화는 20년이 넘도록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삼원화된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탄형 스님에 따르면 사찰승가대학 이수 후 다시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인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같은 중복 이수는 종단 차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행정 · 정재 낭비로 이어진다. 승가교육 커리큘럼의 변화가 이뤄진 제6, 7대 교육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승가교육기관이 일원화되지 않고, 기본교육기관이 대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만큼 교육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본교육기관 전반의 조정을 재차 주장했다.

“스님이 되기 위해 강원만한 곳이 없다”는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강조한 탄형 스님은 사찰승가대학(전통강원)의 강점으로 대중생활을 통해 승려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렇기에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강원교육을 전문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형 스님이 제시한 방안은 종단 단일 교육기관 설립과 이를 통한 전통 · 현대 교육 병행이다. 승가의 전통적인 강원교육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탄형 스님은 “종단의 모든 기본교육기관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현재 위상을 버리고 종단에서 직영하는 종립학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종단 직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도 전통승가교육과 현재 지식 및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전통강원을 전통교육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운영체계와 내용을 구체화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전통승가교육을 지속 ·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종단 직영 단일기본교육기관에 입학한 후 1, 2학년에는 전통강원에서 교양과목과 수행필수과목을 이수하고 3, 4학년에는 단일교육기관에서 전공 중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탄형 스님은 “기본교육기관 단일화를 통해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승가교육 일원화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학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종단 차원의 삼보정재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곡된 백제사 바로잡는다

부여군, ‘사비백제사’ 출간 추진
2월 중 발간…백제 불교 조명도



지난 2020년 9월 진행된 〈사비백제사〉 편찬위원회 모습.

백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비백제사 재정립’ 사업이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비백제사 재정립 연구는 왜곡된 백제사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해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비백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역사서 발간을 골자로 한다. 이에 부여군은 〈사비백제사〉에 대한 집필 내용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백제학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기획회의와 편찬위원회, 집필진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였다.

〈사비백제사〉 집필에는 편찬위원장인 성정용 충북대 교수를 비롯해 권오영 서울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 김낙중 전북대 교수,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 등 편찬위원을 포함한 국내 백제사 전문가 40명이 참여했다.

〈사비백제사〉는 1권 ‘사비시대를 연 성왕과 사비도성’, 2권 ‘불국토의 나라와 유려한 백제문화’, 3권 ‘백제와 함께한 의자왕’을 주제로 해 총 3권으로 출간된다.

1권과 2권은 사비천도 배경과 성왕, 사비도성이 가진 의미, 백제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비백제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권은 의자왕과 백제가 간직하고 있는 왜곡된 이야기의 재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김흔의 시에서 처음 언급되는 ‘삼천궁녀’라는 표현에서 숫자 ‘삼천’은 ‘많다’는 뜻으로 역사적 근거가 없는 단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는 낙화암 삼천궁녀 표현이 보이지 않으며, 시적 수사로 표현된 허구임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아 백마강을 건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조룡대’도 승자와 패자의 관계 속에서 용의 죽음을 백제의 패배로 나타낸 것으로 문학적으로 재생산된 표현이다. 백제의 번창과 강력한 수호를 상징하는 용이 백제 패망의 증거물로 변이되고 전승된 것이라는 것이 사비백제사 연구에 따른 설명이다.

부여군은 원고 집필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출판계약을 완료했으며 감수와 교정 · 교열, 디자인 작업을 통해 오는 2월 중 출간할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백제가 멸망한 뒤 1500년 만에 왜곡된 백제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새로 썼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백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그 인식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여러 편찬 계획을 통해서 대학 역사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정교하고 탄탄하게 집필했다”며 “단순히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론서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든 책인 만큼 역사학도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널리 읽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용어 변경…분류체계 개선

문화재청 연내 변경 추진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보 · 보물 · 사적 등에 붙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변경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문화재위원회에 분과별로 보고하고 연내에 관련 방침을 확정해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는 옛 유물이나 재화를 상징하며 자연물이나 경관 등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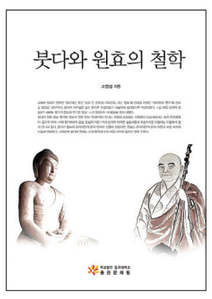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둘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들로부터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3~4월쯤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붓다와 원효가 만난 접점은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붓다와 원효의 철학’



기원전 624년에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는 권력과 재력을 버리고 카필라성을 떠나 출가해 깨달음을 이뤄 붓다가 됐다. 이후 신라에서 태어난 원효 스님은 붓다의 법을 이어받아 일심(一心)과 일(본)각(一(本)覺)을 펼쳐냈다.

인도와 한국에서 1천여 년의 시공간이 떨어졌음에도 붓다와 원효는 법(法)으로 만나 소통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한국불교학회장)가 발간한 학술연구서 〈붓다와 원효의 철학〉은 붓다와 원효의 사상이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붓다가 펼친 중도 연기와 원효가 펼친 일심 · 일(본)각이 만나는 지점과 소통하는 지점에서 불교사상사는 크게 발전했다”며 “붓다가 중도와 존재자들의 존재법칙에 집중했다면 원효는 존재자들의 본래마음과 수행체계에 치중해 설했다. 그리해 붓다와 원효는 존재법칙과 본래 마음 사이의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붓다와 원효 모두 인간을 자유롭게 했음을 전제하면서도 그 방법에는 연속점과 불연속점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닿는 점 위에서 붓다의 독자성이 드러나며 끊긴 점 위에서 원효의 독자성이 나타난다고 고 교수는 강조한다.

책 말미에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원효 저술의 편서 및 역서, 원효 관련 단행본, 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등이 정리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부산불교어산회 회원모집

한국범음범패 역사 1200년 전통의 맥을 이어온 부산불교어산회(현 사단법인 부산영산재보존회의 모체) 로서 과거 통,범소리(통도사, 범어사의 범패소리)를 하는 스님들이 어산을 수련하는 단체이며, 그 행적(行跡)으로

1800년대 | 부산어산회 발족. 기념사업으로 범어사 경내에 어산교 준설
1897년 | 범음요집 발행
1947년 | 대산집 발행
1972년 | 부산무형문화재 제1호 「범음범패」로 지정
1993년 |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지정

본 단체는 선배제현께서 물려주신 의범(儀範)을 수련연마하고
각지역 및 해외 공연과 시연으로 불교전통음악을 널리 알리는 소임을
같이 할 뜻있는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 임시모집일 : 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합동수련개시일 : 3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 문의처 : 051-327-5095,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불교어산회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